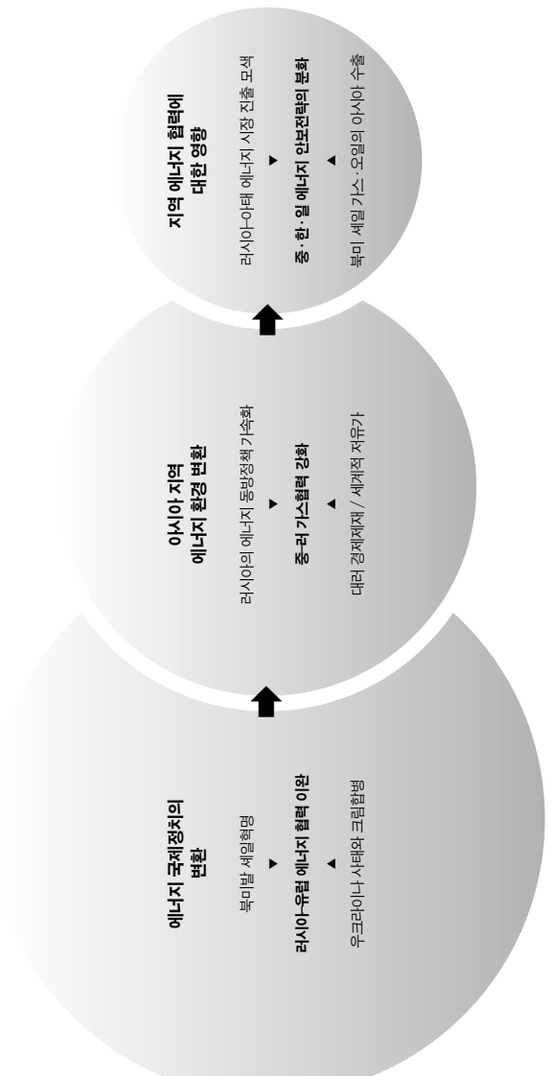
제5장

러시아의 에너지 동방정책과 동북아 국가들의 대응

Russia's Eastern Energy Policy and the Responses of Northeast Asia

신범식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푸틴 대통령은

세 번째 임기에 들어, '신동방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동아시아 지역과의 다각도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014년부터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을 근거로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들을 시행하였고, 2014년 러시아의 대유럽 천연가스 수출량은 감소를 보였다. 이는 러시아가 '에너지 신동방정책'을 통해 '탈유럽 노선'을 걷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대안으로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중국과의 가스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계획이 결실을 맺게 될 경우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과 '알타이 가스관'를 통해서 매년 4,800만 톤의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LNG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해 LNG 특수를 기대했던 미국과 캐나다 및 호주 등지의 생산자들의 기대와 준비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시장을 둘러싼 미국을 중심으로 한 LNG 생산자들과 러시아의 에너지 판매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 같은 러시아의 에너지 동방정책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에너지 협력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은 동북아 국가들에 다중적인 기회와 도전이 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과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축을 이루는 지정학적 구도가 동북아 에너지 시장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다. 한국은 이 사이에서 양자의 대립을 완화하고 지역적 수준에서 협력을 고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amines and evaluates the effect of the recent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s on the shift of Russian energy diplomacy and its impact on the Northeast Asian region from a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energy politics.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consolidated cooperation with East Asian countries from various angles under the name of 'New Eastward

Policy' in his third term. Since 2014, the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EU have imposed economic sanctions against Russia on the grounds of Russia's responsibility for the Ukraine Crisis. As a result of such sanctions, the exports of natural gas to Europe rapidly decreased in 2014. It demonstrates that Russia began its route of 'Leaving-Europe' through "New Eastward Policy". Russia, as an alternative plan for such decrease of export, has tried harder to strengthen the gas cooperation with Asian countries, especially with China since 2014, and finally big gas deals have been concluded between them. If the plan comes to fruition, it would provide 48 million tons of gas to China per year via the 'Power of Siberia pipeline' and the 'Altai pipeline'. Such action is expected to be a blow to the expectation and preparation of suppliers of the U.S., Canada and Australia, who anticipated the continuous increased demands on LNG in Asia, especially China. It means that the war of energy sales over the Asian market between the LNG suppliers such as the U.S. and Russia has begun. Such situation - where Russia's New Eastward Policy has resulted in strategic energ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 has created multi-dimensional opportunities as well as challenges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It implies that the geopolitical structure composed of the two different axes – one is the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and the other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Japan – would likely appear in the Northeast Asian Energy market. South Korea in such circumstances needs to strive to come up with measures to mitigate such confrontation and to enhance the cooperation at the regional level.

KEYWORDS 신동방정책 New Eastward Policy, 에너지 동방정책 Eastward Energy Policy, 중-러 에너지 협력 Russia-China Energy Cooperation, 시베리아의 힘 Power of Siberia Pipeline, 알타이 가스관 Altai Pipeline, 셰일혁명 The Shale Revolution

I 서론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서방 대 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러시아는 신푸틴독트린[1]을 통하여 탈서방정책과 신동방정책으로 특징지어지는 러시아 외교의 동향성(東向性) 벡터를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세계의 경제제재와 유가하락으로 루블화의 폭락 및 경제가 불안정이야기되자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국제정치적 구도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편, 2014년 5월과 201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와 중국은 1조 3,000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 가스 거래를 부분적으로는 성사시켰고, 이를 계속 추진하면서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한층 강화해가고 있다(Экономика 2014; TASS 2015).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협력의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된 서방의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의도를 기반으로 하는 '반응적 대응'이 그 주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 적지 않다.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중요성을 지닌, '정치화된 재화(politicized commodity)'인 에너지 자원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의 에너지 외교는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

1 2014년 3월 18일 크레믈린에서 행한 연설에서 푸틴은 이 새로운 독트린의 주요 쟁점을 역설했는데, 그 요체는 러시아는 다시금 강대국으로 거듭났고, 미국처럼 이중 잣대를 고집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되었음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 푸틴 대통령의 성공적인 크림반도 병합은 모스크바가 다른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새로운 강대국 외교의 시작점을 보여주었다(Ryzhkov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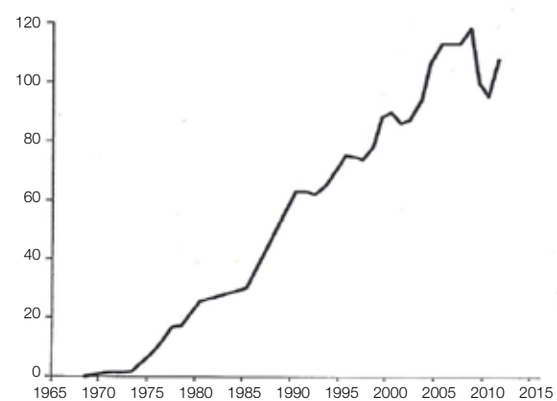
의해 추동되며, 러시아 에너지 외교에 있어서 지전략적 고려는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에너지 외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시장원리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동기와 지전략적 고려에 따른 안보적 동기가 상호연관되어 작용하는 안보와 경제의 연계를 밝히는 작업이 중요하며, 이것이 '에너지의 국제정치' 연구자들의 중요한 숙제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최근 주목받게 된 러시아의 에너지 동방정책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궁지에 몰린 러시아 외교의 반작용이란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에너지 국제정치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PONARS Eurasia 2015).

이 글은 최근의 국제정치적 변동이 가져온 러시아의 에너지 외교정책의 변화와 동북아에 대한 영향을 에너지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답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의 에너지 동방정책은 얼마나 상관성이 있는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에너지 동방정책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기인한 것인가, 영향을 받았다면 얼마나 받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답해보고자 한다. 둘째, 러시아의 에너지 동방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동북아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 특히 중국, 일본, 한국의 대응은 어떤 국내적 필요 및 국제적 환경에 응답하는 에너지 안보 달성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피려 한다.

II 러시아 에너지 동방정책의 추진

소련/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에너지, 특히 가스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는 〈그림 1〉에서 보듯이 중동전쟁 이후 1970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어 유럽의 경제적 통합이 진전되는 과정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했다. 소련 붕괴 이후에도 이 협력은 지속되었으며, 1990년대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수출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2000년대 들어 급속히 발전했다.[2]

특히 푸틴(Vladimir Vladimirovich Putin) 대통령이 취임한 2000년대 초 러시아 에너지 외교의 주요한 목표는 유럽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있었다. 2000년 러시아와 EU 사이의 '에너지 전략대화'가 조직되어 본격적 협력을 모색하였다.[3] 당시 9·11 사



* 단위: Bcm
출처: Hogselius(2013)

그림 1. 소련/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1968-2011)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selius(2013)을 참조.

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에너지 안보에 불안을 느낀 유럽에게 러시아는 중동을 대체하여 대안적인 에너지 공급자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EU의 필요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EU-러시아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되었다. 그리고 러시아는 200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의 40%를 상회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유럽의 주요 에너지 파트너가 되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가스분쟁(2006년 및 2009년)은 안정적 공급자로서의 러시아 이미지를 훼손하여 유럽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2014년 일어난 우크라이나 사태로 말미암아 급기야 유럽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자국의 에너지 수출시장이 유럽에 편중되어 있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이 같은 러시아의 동방진출에 대한 의지는 『러시아 에너지전략 2030』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전략에 따르면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수출은 〈표 1〉에서와 같이 2030년까지 완만하게 증가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는 원유와 석탄의 수출은 약간 줄어들거나 정체하는 가운데 천연가스 및 전력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점은 이런 변화 속에서 특히 아태지역에 대한 에너지 자원의 수출이 2005년을 기준으로 거의 0% 수준에서 2030년경에는 27% 수준까지 늘어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표 2〉 참조). 러시아 정부의 아태지역에 대한 진출의 의지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 전략에 따라 적극적인 아시아 방면의 에너지 수송로 구축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3 2000년 당시 EU는 러시아에서 소비 석유량의 16%, 소비 가스량의 20%를 수입하고 있었다. 이는 9·11이후 급증하여, EU는 자신의 수요의 40%에 달하는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게 되었다.

표 1. 2030년까지 러시아 에너지 자원 수출 전망

	2005년	2008년	1단계 (-2015년)	2단계 (-2022년)	3단계 (-2030년)
총 에너지수출 (백만 toe)	865	883	913-943	978-1013	974-985
총 에너지수출 증감 추이	100 (기준)	102	106-109	113-117	113-114
원유(백만톤)	253	243	243-244	240-252	222-248
천연가스(Bcm)	256	241	270-294	332-341	349-368
석탄(백만 toe)	58	70	72-74	74-75	69-74
전력(억 kWh)	120	170	180-250	350	450-600

출처: 러시아연방정부, 2009, 『러시아 에너지전략 2030』

표 2. 러시아의 아태지역에 대한 에너지 수출의 비중 목표

	2008년	1단계 (~2015년)	2단계 (~2022년)	3단계 (~2030년)
총 에너지의 아·태 수출 비중	-	16-17	21-22	26-27
원유·석유제품의 아·태 수출 비중	8	10-11	14-15	22-25
천연가스의 아·태 수출 비중	-	11-12	16-17	19-20

* 단위: %

출처: 러시아연방정부, 2009, 『러시아 에너지전략 2030』

첫째,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astern Siberia-Pacific Ocean oil pipeline, ESPO)의 건설이다. ESPO는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방의 원유를 태평양 연안까지 운반하는, 동북아 및 아태지역을 향한 러시아 에너지 운송 네트워크의 기간망으로 이르쿠츠크(Irkutsk)주의 타이셰트(Taishet)에서 연해주의 코즈미노

출처: 강혜란(2012)

그림 2. 동시베리아-태평양(ESPO) 송유관

(Kozmino)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4,857km의 파이프라인으로 계획되었다. 2006년 시작된 이 사업은 1단계 공사로 타이셰트에서 스코보로디노(Skovorodino)까지의 약 2,700km 구간을 2009년에 완공하였다. 그리고 2단계 공사인 스코보로디노에서 코즈미노항까지의 구간은 2013년에 완공되었다(〈그림 2〉 참조).

그런데 중국은 ESPO 1단계 공사가 끝나자마자 러시아와의 협의를 거쳐 스코보로디노와 자국의 다칭(大慶) 유전의 송유관망을 연결하는 약 1,000km의 지선(支線) 연결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9월에 완공하였다. 이 ESPO의 다칭 링크를 분석가들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에너지 동맹의 체결"이라고까지 평가하기도 하였다(Gorst 2009).

ESPO 노선의 결정을 두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진 로비 경쟁은 에너지 공급망 구축이 지역정치에 미치는 영향력과 지정학적 파급력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ESPO 노선을 둔 중-일 간의 경쟁은 치열했는데,[4] 우여곡절 끝에 ESPO 라인의 단계별 건설이 결정되고, 1단계 공사가 타이셰트에서 스코보로디노까지 완공된 직후 중국은 "석유-차관(Loans for Oil)"(Blank 2009, 19)을 조건으로 2008년 10월에 스코보로디노에서 다칭 유전까지 지선(支線)을 건설하는 방안을 성사시켰으며, 이를 2010년 9월 완공함으로써 논쟁은 일단락되었다(Platts 2011). 중국은 250억 달러의 차관을 러시아에게 제공하였고, 러시아는 중국에 연간 1,500만 톤(30만 배럴/일)의 석유를 20년간 제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 이외의 아시아 시장에 대한 고려를 포기하지 않았고, 스코보로디노에서 코즈미노항을 연결하는 ESPO 2단계 공사를 완성하여 연 8,000만 톤(160만 배럴/일)의 원유를 아태지역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2012년 말 완성하였다. 또한 코즈미노항에 35만 톤의 원유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1,500만 톤/년의 원유 선적 용량을 6,500만 톤/년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러시아는 코즈미노항을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미주지역에까지 러시아 석유를 수출할 기지로 건설했던 것이다.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회피하려는 전략은 명백해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아시아 방면에 대한 원유 수출이 지니는 성격의 변화가 2013년경에 나타났다. 러시아와 중국은 2013년 정상회담을 통하여 1일 30만 배럴의 수출량을 100만 배럴까지 늘리는 데 합의한다. 이는 러시아가 2012년 중국에 수출한 원유의 두 배에 해당되며 사우디아라비아가 2012년 중국에 수출한 양과 맞먹는다(Downs 2013).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Paik

4 김연규(2011) 참조. 기타 ESPO에 대한 다음의 논의들도 참조. Wishnick(2000); Norling(2006); Ito(2007); Liao(2007); 김상원(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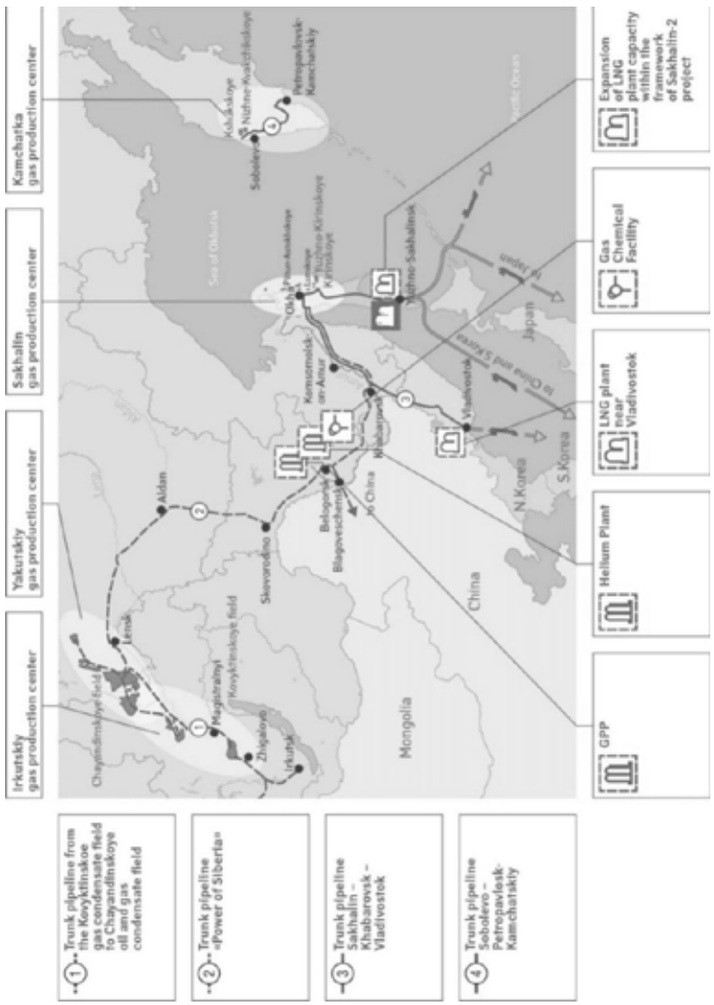
2015). 우선, 러시아가 ESPO를 통한 아시아 원유시장에 공급하는 물량에 차질이 빚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에 최대 물량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은 10년 가까이 소강상태에 있던 러시아 가스 수입 협상의 난제 중 하나인 수입 가스관 노선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선호하는 서부 '알타이' 노선 대신 자국이 선호하는 동부 '시베리아의 힘' 노선을 통해 수입한다는 원칙을 러시아로부터 보장받는다. 바닷길을 통해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 늘 고민해온 중국이 파이프라인을 통한 다량의 원유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상당한 에너지 안보를 증진시키고 향후 가스협상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러시아에 차관을 제공하는 보답을 하게 된다.

2013년 6월 21일 로스네프트(ROSNEFT)는 2014년부터 25년간 2,700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365 mt의 원유를 중국에 공급하는 본 계약을 맺고, 700억 불에 달하는 선급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려운 재정난을 타개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로스네프트는 2014년부터 10년간 850억 달러 분의 원유(약 10 mt/y)를 수출하는 또 다른 계약을 중국석유화공(Sinopec)과 성사시킨다.

그리고 2014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중국국영석유화학(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는 로스네프트사 주식의 국가 지분 중 19.5%를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고 러시아 원유사업의 상류부문에 대한 진출의 첫 걸음을 떼게 되었다(Argus 2014). 만약 중국이 러시아의 가즈프롬(Gazprom)과 로스네프트가 소유한 원유 및 가스의 전략적 광구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다면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협력관계는 고도의 전략적 관계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두 개의 가스협상이 완료되기까지 이러한 변화는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둘째, 러시아의 '동부 가스프로그램'의 수립과 추진이다. 러시아는 유럽에 치중된 천연가스 시장을 다변화하는 방안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천연가스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다년간 꾸준히 기울여 왔다. 말도 탈도 많았던 코빅타(Kovykta) 가스전 개발을 통한 중국 및 한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계획은 러시아의 국내 가스 네트워크화(gasification)를 목표로 하는 단일가스공급체제(Unified Gas Supply System, UGSS)의 구축과 대유럽 수출의 모자란 물량의 확보라는 우선적 목표를 위해 보류 내지 중단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가격이라는 경제적 요인과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은 중단되지 않았고, 그 윤곽은 동부 가스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었다.

동부 가스프로그램은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 매장 추정되는 290조m^3 천연가스를 활용하기 위해 가즈프롬이 설립한 가스 운송망 구축계획으로 동시베리아의 가스 생산기지와 사할린 기지를 설립한 뒤 이를 9,000km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연결하여 내수와 수출용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그림 3〉 참조). 이 중 사할린(Sakhalin) 가스전 개발은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이미 2009년 2월부터 사할린-II 룬스코예(Lun-skoye)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가 프리고로드노예(Prigorodnoye)의 액화천연가스(LNG) 공장에서 가공된 뒤 선편으로 일본, 중국, 한국에 수출되기 시작했다. 사



출처: Paik(2015), http://www.gazprom.com/

그림 3. 러시아 동부지역 가스인프라 건설

할린-II 가스전에서 사할린 남부의 프리고로드노예 LNG 플랜트와 수출터미널까지 연결되는 800km의 가스관이 2009년에 완공되었으며, 연간 960만 톤 이상의 LNG가 아태지역으로 수출되었다.[5] 사할린지역 가스관은 두 방향으로 건설되었는데, 하나는 사할린-II에서 사할린 남부지역으로 가서 LNG로 가공되어 일본과 한국에 공급되며, 또 하나는 사할린-II에서 사할린-I을 경유해 오호츠크해를 통과해 하바롭스크(Khabarovsk)까지 PNG로 공급되어 극동지방을 가스화(gasification)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이성규 외 2009). 이를 위해 러시아는 2009년 7월 사할린-I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하바롭스크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까지 운송하는 총연장 1,800km의 사할린-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톡(S-K-V) 가스관 건설사업에 착수하여 2011년 말 완공하였다.[6] 당시에 이러한 S-K-V 가스관 건설사업은 중국보다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가스 수출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동부 석유·가스 프로그램의 수립과 그 주요 대책으로서 에너지 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의 구축은 러시아의 동부지역의 가스화와 개발 인프라의 건설이라는 국내 정치적 목표와 함께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안정적 국부 창출을 추구하는 경제적 목표, 그리고 러시아 동부지역을 개발함으로써 동북아 및 아태지역 경제로의 안정적인 편입을 달성하려는

5 프리고로드노예 LNG 생산기지는 연간 480만 톤 생산능력을 갖춘 2개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연규(2011)를 참조.

6 2011년 9월에 S-K-V 가스관 공사의 준공차 푸틴 총리가 방문하였다. 푸틴 총리는 APEC 준비사업 현장점검을 하면서 루스키섬에서 가즈프롬사가 주관하는 가스불꽃쇼 점화행사를 개최하였고, ESPO 송유관 2단계 공사의 마무리도 독려하였다.

출처: 강태호(2014)

그림 4. '알타이 가스관(서부노선)'과 '시베리아의 힘(동부노선)' 건설 계획

목표 등의 다층적인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 가스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러시아의 열망은 쉽사리 실현되지 않았다. 중국과의 가스 협상이 노선문제, 가격문제, 투자조건 문제 등에서 좀처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거대 가스 수입국 한국으로 가스관 부설을 통해 수출하는 계획은 거의 무산되다시피 했다. 러시아의 동부가스프로그램은 급격히 변화하는 가스시장의 변화에 대하여 점점 더 취약해져 가면서 러시아 당국으로 하여금 초조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간의 협상 끝에 중국과 러시아가 계약가 770억 달러의 '시베리아의 힘'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데 합의했다. 2014년 5월 21일 양국은 2018년부터 중국으로 380억m^3 (38 Bcm)의 가스를 수송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가스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계약 시기가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지정학적 맥락과 연관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이 같은 지정학적 상황이 본 계약과 관련된 가격결정, 경로, 원유 탐사생산투자(upstream investment) 등에 관한 이견들을 해소시킨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같은 이견을 해소하고 계약을 추동하는 동력의 일부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양국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상황 및 국제 에너지 시장으로부터의 압력 등으로부터 유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위시닉(Wishinick Elizabeth)은 양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Wishinick 2014). 러시아는 알타이 지역에서 중국 서부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러시아가 서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서시베리아의 가스전과 같은 곳에서 중국으로 공급하는 것을 희망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가스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최대의 정치적, 경제적 레버리지를 소유한 '스윙생산자(swing producer)'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가격과 관련해서도 러시아는 중국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지불하는 것보다 높은, 유럽이 지불하는 수준의 가격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중국은 시베리아에서 중국 동북부로의 경로를 주장했다. 중국은 이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중국 서부의 신장으로 이어지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었고, 인구가 많고 더 발달된 동부지방에서 가스가 더 긴급하게 요구되었다. 가스 공급의 안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중국은 유럽과 공유하는 것이 아닌, 중국만을 위한 가스 공급처를 동시베리아에 갖기를 원했던 것이다(Paik 2014, 20). 게다가, 중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원유 탐사·생산 등의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격 통제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시장에서의 손실을 만회해야만 했다. 결국 중국은 국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낮은 가격을 원했고,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 기회를 얻는 것을 희망했던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가스시장에서의 변동뿐만 아니라 양국 지도부 입장의 변화 때문에 양자 간 입장의 차이를 좁힐 수 있었다. 양국의 새로운 리더십은 오래 지연된 대화에 새로운 추동력을 주었다. 2013년 중국의 주석 시진핑(Xi Jinping)이 취임 당시 최초의 해외순방지로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동안 새롭게 3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이 시베리아 경로 설정에 합의했다. 그리고 이 진전을 바탕으로 이듬해에 가즈프롬과 CNPC가 남아 있는 장애물들, 특히 가격 설정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었다.

중국이 지불하는 정확한 가스가격은 비밀에 부쳐져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1,000m^3(tcm)당 350불 정도(약 백만 btu 당 9-10불)에 가격을 협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가즈프롬이 유럽에 판매하는 1 tcm당 380불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Gloystein 2014). 몇몇 러시아 관료들은 중국의 기본 가격이 1 tcm당 360불로, 독일(366불)보다 약간 낮은 정도이며, 유럽과 아시아 간에 어느 정도 동등한 가격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Guo, Haas and Mazneva 2014). 또한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에 1 tcm당 322불의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가격은 아시아 LNG 시장에서 거래되는 1 tcm당 501불에 비하면 훨씬 낮은 가격이다(Koch-Weser and Murray 2014).

일부에서는 중국이 가격에서 커다란 이익을 보았고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서둘러 타협하게 되었다는 분석들도 있었지만,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9년 발행된 『러시아 에너지전략 2030』은 향후 러시아 가스 수출의 1/5에 해당하는 75 Bcm이 아시아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표 1〉, 〈표 2〉 참조). 하지만 이러한 목표와 러시아의 동부 가스전의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대한 판매는 충분히 성장하지는 못했다(Henderson and Stern 2014, 2). 사할린-II 가스전에서 16.6 Bcm 정도가 수출되고 있을 뿐이다. 핸더슨(Henderson, John)과 스턴(Stern, Jonathan)에 따르면, 가즈프롬은 다른 아시아 시장에 천연가스를 판매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 LNG 공장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중국과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만약 중국으로 가는 시베리아 파이프라인이 LNG 공장으로의 유일한 가스 공급처라면 이 공장은 경제적으로 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은 귀 기울여 볼만하다.

가즈프롬과 CNPC 간의 협상이 지연되는 중 2013년 12월 노바텍(Novatek)과 로스네프트(Roseneft)는 LNG 수출에 대한 허가를 크레믈린궁으로부터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는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에서 가즈프롬에 의한 독점이 끝났음을 알리는 동시에, 블라디보스토크 LNG 공장에 노바텍의 야말 가스전 및 로스네프트의 사할린-I 가스전 등의 새로운 가스 공급처가 잠재적으로 생기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러시아의 아시아 가스시장 지분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현실로 만들었다.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9%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세계 LNG 판매량에서 4% 미만의 시장점유율만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 에너지부

부장관인 몰로쪼프(Kiril Molodstov)는 2013년 사할린 석유가스 컨퍼런스에서 러시아가 2030년까지 LNG 판매의 20% 지분을 차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Wishinick 2014). 아시아 시장 전반에 대한 진출 의도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석가들은 중-러 가스 협상에서 누가 더 많은 이익 내지 손해를 보았는지 계산하는 데 분주해했다. 어떤 이들은 중국이 가격을 낮추고 선불을 통해 경제력을 과시할 수 있었기에 승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이들은 중국이 선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중국의 상류부문에 대한 진출을 저지한 것을 러시아의 훌륭한 방어였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중국 연구자들은 가격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높게 책정되었음을 비판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위안화가 가치가 오름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일부 러시아 전문가들은 푸틴이 러시아의 자원을 중국의 선불과 맞바꿨음을 비판하며, 중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러시아를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시킬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극히 비판적인 폰트콥스키(Andrei Piontkovsky)와 같은 분석가는 이 거래가 "극동 지방과 시베리아 영토가 중국의 '생활권(living sphere)'으로 합병되는 과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Piontkovsky 2007). 하지만 이런 관찰들은 모두 일면적인 판단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은 양측이 모두 얻은 것이 있고, 거래를 위해 타협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적정한 가격을 가졌고, 이것은 아시아에서의 LNG 구매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로 작용하겠지만, 원유 탐사·생산 투자 기회는 얻지 못했다. 물론 가즈프롬이 향후 동부 가스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이런 조건은 변화할 수 있다. 거래가 성립한 이후에 메릴린치(Merrill Lynch)사는 가즈프롬에 대한 투자전망 등급을 낮추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Treadgold 2014).

한편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거래를 한 것인데, 유럽이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셰일혁명으로 인한 가스시장에서의 변화 때문에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상황에서, 아시아 에너지 시장의 중요한 행위자가 될 발판을 마련했다. 가즈프롬은 가스에 대한 세계적 수요의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며, 유럽 에너지회사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치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는 유럽 소비 가스의 30%(한때 40%에 가깝게 도달하기도 했는데)를 공급해왔지만, 그 절반은 우크라이나를 통해 수송되었다. 유럽이 가즈프롬과의 장기계약을 대체할 파트너를 찾고 있기 때문에 가즈프롬은 새로운 장기계약 파트너를 찾아야 하며, 중국은 긴박한 러시아의 상황을 완화시킬 잠재적 돈줄이 된 것이다(Skalarmera 2014, 2).

중국의 에너지 분석가 다운스(Erica Downs)는 중국의 도움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이 곤경을 빠져나온 사례가 몇 차례 있다고 지적한다. 로스네프트는 최초의 수혜자로 2005년 유코스(YUKOS)를 매입할 때 60억 달러의 차관을 받았고, 이후 2009년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 당시 250억 달러을 받았다. 가즈프롬이 최근의 거래에서 CNPC로부터 향후 가스 수송비용으로 25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받았으며, 러시아 회사가 동시베리아의 가스전을 개발하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데 필요로 하는 700억 달

러 중 일부를 추가적으로 제공받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것이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중국이라는 강력한 친구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아도 중국시장에 러시아가 진출하는 것은 서구 제재의 영향을 완충하게 될 것이다(Downs 2014).

유럽이 대안적 가스 수입 통로로 구축하려 추진했던 나부코(Nabucco) 가스관 사업을 따돌리고 러시아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사우스스트림(South Stream) 가스관 사업을 2014년 12월에 포기 선언한 것은 러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전략 협력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는 사실을 웅변해 주고 있다(Henderson 2015). 이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에너지 수입의 다변화를 추구해 온 유럽연합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러시아와 서방 및 미국 사이의 안보관계 발전의 정체 내지 악화에 따른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에너지 안보의 문제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안보적 이유에 의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받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와 중국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십여 년에 걸쳐서 협력을 모색해 왔으며, 경제적 동인과 정치적 동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양자간의 에너지 협력이 점차 전략적 수준의 에너지 협력 구도에 근접해 가게 된 것이다. 즉 에너지 자원을 사고파는 상업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자원개발과 기업에 상호 투자하며 양측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미래를 향한 맞춤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Paik 2015, 1-2).

이러한 추세는 러시아 전승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스크바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이 2015년 5월 8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2014년 11월 맺었던 양해각서에 기초하여 향후 '알타이 가스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통해 더 확실시 되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 천연가스 3,000억 달러어치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합의했다. 러시아가 중국에 '서부' 시베리아 가스전의 가스를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피하고 싶었던 조건을 수용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것은 동부 가스전의 제한된 물량과 새로운 가스전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중국의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러시아는 앞으로 서부 시베리아 가스전으로부터 중국에 공급되는 가스 공급량을 3배 가량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타스(TASS) 통신이 전했는데(TASS 2015), 이렇게 되면 서시베리아 가스관에서 중국에 수출되는 러시아 천연가스는 1조 달러어치에 달하게 되고, 여기에 2014년 5월 계약된 동시베리아 가스까지 합하면 러시아는 중국에 총 1조 3,000억 달러의 가스를 수출하게 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마침내 중국이 사할린 가스전 탐사에 참여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드디어 러시아의 상류부문에 대한 진출의 문을 열게 된 것이다. 러시아는 일찍이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유럽과 실현하고자 했지만, 우크라이나 요인과 미국의 견제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그에 따른 유럽 가스시장의 변화 때문에 유럽과의 '전략적 에너지 협력'을 실현해 내지 못하였다.

결국 이 가스협상을 통하여 양국은 긴밀한 중-러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배경으로 더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했다. 공급의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협상에 합의함으로써 에너지 부문에 있어 이전보다 더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었다. 중국은 이미 ESPO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석유의 9%를 공급받고 있다. 가스 파이프라인이 일단 개방되면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가스 공급의 증가 수준에 따라 중국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가스 공급국이 될 것이다. "오랜 협상이 이 순간에 종결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구 간의 긴장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중-러 간의 에너지 상호의존"의 심화라는 지적(Shoujun 2014)은 바로 중-러 간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협력의 본질을 잘 설명해준다.

III 러시아 신동방에너지정책과 동북아 국가들의 대응

1. 중국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대응은 한마디로 러시아의 동방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전략이다. 이 같은 대응을 설명할 국제적 측면의 이유들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 전략의 이면에 놓여있는 중국의 국내적 필요에 대한 이해 역시 중국의 대응이 지닌 지속성이나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의 가스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관심은 중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고민과 그 해결을 위한 정치적 노력의 긴박성을 반영하고 있다. 전례 없는 스모그와 나쁜 공기 질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 증대에 중국의 리커창(Li Keqiang) 총리는 2014년 3월 중국 의회 연설에서 '오염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중국은 현재의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5년까지 중국 에너지 믹스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을 4%에서 8%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国务院办公厅 2014). 교통과 가계 부문에서 석유·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에너지 믹스에서의 그 비중은 높아질 것이며, 원자력의 비중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 에너지 수급구조의 최적화 및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오염과의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 수단은 역시 '탈석탄화' 정책일 것이다. 중국정부는 석탄 사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대신 다양한 대체 에너지원의 마련에 고심하여 왔다. 원전의 증설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화석연료로부터 대체 연료로 전이하는 중간단계에서 석탄이나 석유보다 온실가스 발생이 훨씬 적은 천연가스는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특히 2015년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담은 협약의 체결이 성사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 형성의 장애가 되었던 선진국 대표 미국과 개도국 대표 중국의 대립 전선이 약화되었고, 두 국가는 이에 전향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The White House 2014).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출범하게 될 경우 중국이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스스로

부과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기후 온난화에 대한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 중국이 적절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적 압력이 높아가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탈석탄화'와 '가스화'의 조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중국의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급속히 증가될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변화하는 중국 에너지 믹스의 추이는 중요한 관찰 대상이 아닐 수 없다.

2007년 초반, 중국은 천연가스의 순수입국이 되었고, 2013년에는 세계 3위 소비국이 되었다. CNPC에 따르면, 중국은 2013년에 167.6 Bcm의 가스를 사용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3.9% 증가한 양이다(CPNC 2013; CPNC 2014).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국 수입량의 46.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카타르와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LNG로 수입된다. 미국 해군에 의해 중국의 해상 에너지 수입통로 접근이 거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정부는 대안적 육상 가스 공급경로를 찾게 되었고, 미얀마에 이어 러시아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러 가스 협력의 발전은 중국이 다른 공급자들로부터 더 나은 LNG 가격을 협상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국내 가스 판매를 통한 이윤의 확대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가정용 가스가격을 올려왔다. 2014년 7월, 중국의 국가개발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는 국내 천연가스 가격을 15.4% 올렸는데, 이것은 비주거용 소비의 평균 가격이 8.90달러/mmBtu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2015년 말까지 천연가스 가격은 더 인상될 것이라고 한다. 가격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변화는 이전에 CNPC가 러시아와의 가스 협상에서 요구했던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격을 2014년에 수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설명해준다.

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선물을 주고자 하였는가에 대해 백근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백근욱 2015).

첫째, 중국은 자국 에너지 혁명의 토대가 되는 탈석탄화 정책의 일환으로 가스 사용 극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2030년 중국 에너지 믹스에서 가스의 비중이 1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정책이 적극적으로 조정된다면 15-18%로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중국의 해양수송을 통한 석유·가스 도입 물량을 낮추기 위해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 극대화 방안을 중국 최고지도부가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실크로드 경제협력 벨트 구상(Silk Route Economic Belt Initiative)'(China Daily 2013)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 러시아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동시에 중국이 갈구하는 러시아 상류부문(upstream)에 대한 지분확보, 특히 러시아 국영석유회사 로스네프트가 보유한 초대형 반코르(Vankor) 유전의 10% 지분확보의 과제가 알타이 가스프로젝트가 맞물려있음을 전제한다면, 이 프로젝트의 추진은 양국 간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로서는 알타이가스 수출 돌파구가 매우 중

요해진 시점에, 또한 유가하락과 서방제재로 연간 1,400억 달러의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통해 알타이가스의 판로를 확보하는 것은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스윙 공급자'가 되는 발판을 만들고, 또한 러시아가 완전히 고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다. 동시에 서방의 다국적 원유회사(international oil company, IOCs)들의 주요 LNG 시장인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그 잠재적 시장 지분 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7] 간접적으로는 서방에 대한 경제적 보복의 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반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중국은 이런 러시아의 입장을 포용하면서 중국은 2014년 11월 9일 알타이프로젝트의 양해각서 체결 후에 중앙아시아 가스 도입을 연간 55 Bcm에서 85 Bcm으로 확대하는 중앙아시아 파이프라인 D구간(30 Bcm/yr) 건설완료 시점을 2016년에서 2020년으로 늦춤으로써 알타이 가스와 중앙아시아 가스 간의 경쟁구도를 구축,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에너지 국제정치의 상호적 성격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백근욱 2015).

7 중-러 PNG 서부노선을 통해 연간 30 Bcm의 가스가 2020년경 중국에 도입된다면 연간 2,000만 톤 규모의 신규 LNG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장상황과 더불어 향후 중국 천연가스 수요증가 둔화세가 현실화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신규 LNG 프로젝트들 간의 개발 경쟁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2. 일본

러시아의 에너지 동방정책에 대하여 일본이 취하고 있는 자세는 적극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상황과 조건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러시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프로젝트들을 탐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LNG 수출의 드라이브를 걸 때에 일본은 미국 쪽으로 수입선을 잡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일본의 반응과 관련하여 어떤 내적인 조건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효율 에너지 활용체제를 가진 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적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에만 하더라도 파격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던 일본은, 기후변화협상 타결이 국제적으로 지연됨에 따라 최근 자국 감축노력을 국제적으로 공인화하려는 등 실리추구의 협상전략으로 돌아섰다.

출처: 국제무역연구원(2015)

그림 5.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변화

기존에 미쓰비시나 미쓰이 등의 종합상사들은 동남아와 중동 등지에서 신규 LNG 공급원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9년 이후 호주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LNG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지는 못했다. 일본의 천연가스에 대한 관심은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 이후 급속히 높아졌다. 이는 일본의 내적인 요건 이외에 국제 LNG 시장의 환경변화와도 깊은 연관을 가진다.[8] 이런 중에 일본은 원전가동 중단으로 인해 화석연료를 통한 발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고 더 많은 화석연료를 수입해야 했다. 따라서 무역수지의 적자 폭도 확대되었으며,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급원의 다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러시아로부터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천연가스의 수입량을 대폭 늘렸으나, 러시아와의 LNG 통로가 한 곳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천연가스 수입량 중 러시아산의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수입량의 10%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러시아와 일본은 사할린-일본을 잇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황광수 2014),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새로 건설되는 LNG 시설 건설에 대해서 일본 내 다수의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의 천연가스 거래는 앞으로 일정 정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Motomura 2014, 68-79).

중국과 러시아의 가스 거래는 러시아를 아시아의 가스시장에서 더욱 광범위한 행위자로 만들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 가스의 아시아 진출은 아시아 가스시장에 대해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중-러 거래가 성사된 지 한 달 뒤에 일본 기업들은 로스네프트와 가즈프롬과 LNG 거래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심지어 일본 자민당의 몇몇 정치인들은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이어지는 60억 달러의 가스 파이프라인 계획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가스 수요의 17%에 해당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러 가스협정이 가져올 LNG 가격 인하 압력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미국의 셰일가스의 수출에 반응하여 일본은 2014년 9월 연 1,690만 톤의 LNG 액화가스 물량을 확보하였다. 이는 일본의 천연가스 수요를 상회하는 물량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또 다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서정규 2014).

8 최근 국제 LNG 시장의 변화와 관련된 한원희의 다음 지적은 동북아 가스시장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1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원전들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대체 발전을 위한 LNG 현물 수요가 급증하였고, 한국 역시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면 서 현물 LNG 수요가 증가하였다. 여기에 수력 발전량이 감소한 남미지역에서도 계절적 수요가 증가하였다. 반면 유럽지역은 재정위기로 인한 가스 수요감소에 따라 장기 LNG 계약상의 잉여물량 해소 및 차익거래를 위한 LNG 재수출이 활발해져 2013년 400만 톤 정도가 재수출 되었다. 이로 인해 2013년 세계 LNG 단기 거래량은 사상 최대인 6,500만 톤을 기록하여 2010년 이전까지 전체 LNG 거래량의 20% 미만이었던 비중이 27%까지 증가하였다. 비록 최근 LNG 단기 거래의 증가는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의 중단기적인 수급 상황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주된 원인은 북미지역의 셰일가스 생산 붐에 따른 LNG 시장에서의 이탈과 이로 인해 당초 이들 시장을 겨냥했던 유연한 물량(Flexible LNG)들이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카타르를 중심으로 한 유연한 물량의 증가는 국제 LNG 시장의 장기 계약 관행과 거래 유연화에 점진적인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제 LNG 시장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한원희 2014, 9)

3. 한국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러시아의 에너지 동방정책과 큰 연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대통령과의 2008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합의하여 2013년 착공하고, 2017년부터 남한에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9] 하지만 북한 통과문제로 인한 여론의 분열과 미국 셰일가스 수출에 따른 시장조건의 변화는 이 사업에 악재로 작용하였으며 그 시기 LNG 수출에 관심을 높이던 러시아의 상황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일본 모리(Mori Yoshiro) 전 총리를 만나 가스관을 통해 홋카이도에 공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면서 실제적으로 좌초되었다.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러시아 천연가스의 수입과 관련된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한-러 간 천연가스 거래는 2013년 총 수입량인 52.5 Bcm 중 2.5 Bcm(4%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원자력발전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2016년경에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숨통을 조금 텄을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대체에너지의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상 체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이제 개도국의 지위를 주장하기 쉽지 않은 위치로,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본격적으로 아시아에 수출되는 상황을 한국은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상황이 한국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칼리츠키 박사는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은 현실이며 한동안 지속될 현상이라고 전제하면서 셰일 혁명이 가져올 동북아에서의 변화와 도전은 한국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동서문제연구소 2014). 미국 셰일가스 혁명뿐만 아니라 중-러 가스협력이 진전되는 것도 한반도에 가스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공급원의 출현이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국가로서 이 위치를 잘 활용하면 미국으로부터 수출되는 셰일가스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고 나아가 다변화된 공급원으로부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자관계에 의존하는 접근법보다는 지역적 내지 글로벌한 접근법을 통하여 에너지 협력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파리에서 기후변화대응 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에너지 수요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2014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견지하여 협상에 임할 경우 획기적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전력생산을 석탄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런 변화는 큰 도전

9 이에 대하여는 Shin(2011)을 참조.

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한국정부는 자국의 2차 에너지 수급계획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감소시킨 바 있는데, 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상황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가스 공급가의 변화가 LNG의 지구적 상품화를 촉진시키게 될 경우 지구 에너지 믹스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기후변화체제의 변동과 무관히 선진국들의 탈석탄화 경향은 계속될 것이고,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석탄 의존에 대한 압력도 더욱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전환기 화석연료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으며 한국도 에너지 믹스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고, 이에 러시아와 미국의 가스 연료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나갈 필요가 있다.

IV 동북아시아 에너지 국제정치의 동학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세 번째 임기를 맞이하면서 '신동방정책'이라는 명목하에 동아시아 지역과의 다각도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014년부터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책임을 근거로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들을 시행하였고, 마침 2014년 러시아의 대유럽 천연가스 수출량은 감소를 보였다.[10]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러시아가 에너지 신동방정책을 통해 '탈유럽 노선'을 걷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0 가즈프롬의 유럽 가스 수출량은 2013년 166 Bcm에서 2014년 147 Bcm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구의 제재조치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대유럽 수출은 제외되었다는 점(박지연 2014, 37-49), 천연가스의 공급 계약은 장기간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2014년에는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점에서 에너지 신동방정책과 러시아의 대유럽 천연가스 수출량 감소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러시아의 에너지 동방정책의 결과는 빠르면 2017년부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신동방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ESPO를 통한 대중국 석유수출을 2013년을 지나면서 최대 출력으로 조정한 바 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현재 천연가스가 유통되고 있지는 않지만, 2014년 5월에 체결된 동부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계약과 2015년 5월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국빈방문을 통해 얻어진 서부 알타이 가스관 합의 등과 같은 중-러 간 대규모 파이프라인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게다가 22.7 Bcm의 수용 능력을 가진 야말 LNG 시설이 2017년부터 가동 예정이고, 2018년에는 11.9 Bcm 규모의 사할린 LNG 시설들이 가동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전후로 완성될 38 Bcm 규모의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과 2030년 전후로 완성될 30 Bcm 규모의 알타이 가스관은 러시아의 중국 및 동북아시아 지역 에너지 공급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Shadrina 2014).

특히 30년 장기계약에 의해,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을 통한 중국으로의 가스 공급은 중국 동북지방을 포함한 발해만 연해의 중국 가스시장으로의 LNG 공급 가능성을 현저히 줄였다. 게다가 알타이 프로젝트는 훨씬 큰 영향을 아시아 가스시장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러시아를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스윙 공급자로 만들고,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시장에 LNG를 공급하려는 경쟁상대, 특히 미국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지방발전의 동력 확보, 대기오염 감축에 대한 필요, 그리고 탈석탄화 정책은 중국의 절실함이 되었고, 유라시아 에너지의 수입은 중국의 저개발된 동북지방과 서부지방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수송로에 의지하지 않는 에너지 수입원을 보장함으로써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Watt and Isachenkov 2014).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적 위축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중국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대응책이 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북미와 러시아의 양방향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피보팅' 정책의 충돌지점이 되었고 당분간 이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셰일혁명을 통한 가스와 오일의 공급증대와 그에 따른 유가 하락이라는 에너지 국제정치의 지각변동과 같은 영향은 당분간 그 파괴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김연규 2014, 99).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에 LNG 판매를 늘려 러시아의 시장점유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미국 의회는 최근 LNG 계약 승인 과정을 단순화하는 법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런 미국의 대응을 바탕으로 현재 셰일혁명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11] 미국은 한, 중, 일이 현재 구매하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보다 저렴하게 약 50 Bcm(시장의 약 20% 점유율) 정도의 LNG 가스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 중인 미국 내 에너지 수출법의 수정과 구매계약이 진전되면, 미국의 LNG 수출은 2018년부터 본격화되어 일본이 다량을, 그리고 한국이 일정량을 구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연규 2015).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공방의 이면에는 에너지 국제정치적 갈등과 이익 충돌이라는 경쟁의 국면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다. 러시아가 알타이 가스관 계약을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중국과의 가스 파이프라인 협정에 있어 푸틴에게 긴급성을 더해주었지만, 가즈프롬의 재정과 필수적인 기술에의 접근에 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 공급 시기는 2018년으로 미루어졌다. 미국과 EU의 에너지 생산 기술의 수출에 대한 제재는 가즈프롬이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 아무르 강 경계 지역에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에 필요한 장비를 획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적인 제재의 불확실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가즈프롬은 파이프라인 건설에 착수했다. 2015년 8월 초 가즈프롬은 첫 번째 파이프를 렌스크(Lensk)에 수송했으며, 201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러시아의 계획이 결실을 맺게 될 경우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과 알타이 가스관을 통해서 68 Bcm(약 매년 4,800만 톤)의 가스가 중국에 공급될 것이고, 이에 기존 공급 중인 14 Bcm의 사할린

11 미국 내 세일가스 및 오일 생산과 관련하여 수자원 고갈, 지진 발생, 환경파괴 등의 논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일혁명은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LNG까지 합치면 2020년경 총 82 Bcm의 가스가 중국에 공급될 것이다. 이는 아시아에서 LNG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되는[12] 가운데, 아시아, 특히 중국시장의 LNG 특수를 기대했던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 등지의 생산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도 같아서 큰 지출이 들어간 LNG 프로젝트의 보류 내지 포기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아시아 시장을 둘러싼 미국을 중심으로 한 LNG 생산자들과 러시아의 총성 없는 전쟁은 시작되었다. 이미 태평양 연안의 수출기지를 확대하고 아시아에 대한 대규모 LNG 수출을 시작하려는 미국은 러시아 에너지 동방정책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다. 러시아에게는 시간이 중요하다.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시베리아의 힘 프로젝트와 알타이 프로젝트를 실현하여 중국의 가스시장을 석권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대중국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집중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러시아가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을 치르며 내걸었던 'Pivot to Asia' 정책은 적어도 에너지 전략과 관련해서는 'Pivot to China'로 환원되는 것(Gabuev 2015)으로 판단된다. 물론 미국의 분석가들은 중-러의 관계강화를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 정책을 통한 에너지 안보 헤징 전략과 향후 석유와 가스 협상에서 저렴한 에너지 수급을 지향하는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계산으로 제한하여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가격 유연성과 신속한 실천만 담보할 수 있다면 중국과 전략적 의미를 지니는 에너지 교역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Jaffe, Medlock and O'Sullivan 2015).

V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의 에너지 동방정책은 직접적이며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적지 않은 영향을 준 측면이 있지만, 러시아는 에너지 동방정책을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시도해 왔으며 이것을 가속화하는 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리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의 국면이 미국과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에너지 국제정치의 지정학적 영향과 결부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둘째, 이 같은 러시아의 에너지 동방정책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인 에너지 협력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은 동북아 국가들에

12 "그동안 북미, 유럽 지역 가스시장에 비해 발전단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미성숙했던 아시아 가스시장은 향후 지역 내 대규모 가스 수요증가에 힘입어 거래방식과 가격결정방식 등에 있어서 빠른 변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아시아 가스시장은 그동안 가스시장 발전정도에 따라 지역적으로 분리 구분되어 온 세계 가스시장을 긴밀히 연계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내 단일 가스시장이 조성되고 지역 가스시장의 수급상황과 여건을 반영하는 대표 가스가격 지수가 개발되는 등의 기대도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아시아 지역은 세계 가스시장 발전을 견인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띄며 발전해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0년경 아시아 지역 예상 LNG 수요는 약 2억 5,000만 톤 규모로서 2013년에 비해 약 40% 이상 증대될 전망이며, 2025년경에는 약 2억 9,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규모는 2013년 아시아 지역 LNG 수요 대비 1억 2,000만 톤 증가한 규모이다. 즉 향후 10년 사이 현재 일본이 도입하고 있는 LNG 수요의 1.5배가 신규로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황광수 2014, 50-51).

다중적인 기회와 도전이 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과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축을 이루는 지정학적 구도가 동북아 에너지 시장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

한국은 이 사이에서 양자의 대립을 완화하고 지역적 수준에서 협력을 고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분단의 상황과 반도적 특성을 결합하여 현재 직면한 에너지 국제정치의 파고에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분단이라는 상황이, 그리고 반도라는 강대국 지정학적 각축의 무대라는 특성이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결국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시장은 2015년 러시아의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건설과 알타이 가스관 협상을 통해 중국에 대한 가스 수출을 극대화하려는 러시아의 전략과 셰일혁명 이후 아시아에 대하여 액화가스를 수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충돌하는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와중에 한국은 중-러 간의 가스 협력안과 미국의 LNG 수출안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가스 도입가를 낮추고 공급원을 다변화하여 동북아 가스 수요국들 간의 협력을 모색하는 중견국 자원외교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외교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참고문헌

강태호. 2014. "중·러·몽골 '대륙의 길' 3각 협력." 『한겨레』 (8월 5일).

강혜란. 2012. "시베리아~태평양 4739km...러시아, 오일로드 뚫었다." 『중앙일보』 (12월 26일). http://pdf.joins.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DY01201212260159 (검색일: 2012년 12월 27일).

국제무역연구원. 2015.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대응 비교 및 시사점." 『Trade Brief』 No. 10.

김상원. 2011. "러시아의 에너지전략 변화와 러·중 에너지 협력." 『한국동북아논총』 61호.

김연규. 2011. "중국·러시아 "편의의 에너지동맹"(Energy Axis of Convenience)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 『녹색의 국제정치학: 핵·에너지·환경』(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자료집) Vol. 2011, No. 4. 57-81.

_____. 2014. "글로벌 셰일혁명과 동아시아 에너지 시장 및 지정학의 변화."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편. 『동아시아의 보편성과 특수성』 서울: 사회평론.

_____. 2015. "미국 셰일혁명과 동북아 에너지 시장·지정학 변화." 『Russia-Eurasia Focus』 311호.

동서문제연구소. 2014. "통일한국의 천연가스 협력과 독일의 경험." 국제 에너지 학술회의. 서울. 11월.

박지연. 2014. "유럽 가스산업의 도전과 기회." 『계간 가스산업』 제13권 3호.

백근욱. 2015. "2015년 세계 에너지 시장 관전 포인트." 국가미래연구원 블로그 http://www.ifs.or.kr/modules/board/bd_view.asp?no=266&ListBlock=10&gotopage=23&Pagecount=46&sk=&sv=&id=blog&ca_no=&mncode=&left=&top=&author=&top=1 (검색일: 2015년 8월 29일)

서정규. 2014 "일본의 미국산 LNG 도입 동향과 시사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4-37.

이성규 외. 2009.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수출구조와 수출수송시스템 분석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자료.

한원희. 2014. "LNG수입국 특성 분석 및 잠재력." 『계간 가스산업』 가을호.

황광수. 2014. "아시아가스시장의 역동성: 전망과 기대." 『계간 가스산업』 가을호.

Argus. 2014. "Rosneft sale gets the nod." *FSU Energy* (December 4).

Anderlini, Jamil and Chazan, Guy. 2014. "Russia and China strengthen ties by striking $400 bn deal for gas." *Financial Times* (May 22).

Blank, Stephen. 2009. "Loans for Oil, the Russo-Chinese Deal and Its Implications." *Northeast Asian Energy Focus,* Vol. 6, No. 2 (Summer).

China Daily. 2013. "President Xi proposes Silk Road economic belt." (September 7), http://www.chinadaily.com.cn/china/2013xivisitcenterasia/2013-09/07/

content_16951811.htm. (검색일: 2013년 9월 10일).
CPNC, Annual Report 2013. 2014. http://www.cnpc.com.cn/en/xhtml/features/AnnualReport2013online/Annual_Business_Overview-1.1.html; http://www.cnpc.com.cn/en/AnnualReport2014online/default.shtml. (검색일: 2014년 11월 21일)
Downs, Erica. 2013. "Money Talks: China－Russia Energy Relations after Xi Jinping's Visit to Moscow." *The Brookings blogs* (April 1), www.brookings.edu/blogs/up-front/posts/2013/04/01-china-russia-energy-relations-downs. (검색일: 2014년 8월 7일)
_____. 2014. "In China-Russia gas deal, why China wins more." Fortune (June 20),
http://fortune.com/2014/06/20/in-china-russia-gas-deal-why-china-wins-more/ (검색일: 2014년 9월 14일)
Gabuev, Alexander. 2015. "A 'Soft Alliance'?: Russia－China Relations after the Ukraine Crisis."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o. 126.
Gloystein, Henning. 2014. "Russia-China gas deal creates benchmark for global market." Reuters (May 22), http://uk.reuters.com/article/2014/05/22/uk-gas-russia-china-pipeline-idUKKBN0E219Y20140522 (검색일: 2014년 9월 22일)
Gorst, Isabel. 2009. "Russia: Rising taxes cast shadow over eatern expansion," *Financial Times* (September 12), http://www.ft.com/cms/s/0/b1c9cd84-bc71-11df-a42b-00144feab49a.html#axzz1VrGWGkwx (검색일: 2011년 8월 21일).
Guo Aibing, Haas, Benjamin and Mazneva, Elena. 2014. "Russia Close to $400 Billion Gas Pipeline Deal in Pivot to China." *Bloomberg News* (May 20),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4-05-19/putin-seeks-400-billion-gas-deal-as-ukraine-speeds-china-pivot (검색일: 2015년 2월 19일)
Henderson, James. 2015. "Russia's Changing Gas Relationship with Europe."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163 (February 24).
Henderson, John and Stern, Jonathan. 2014. "The Potential Impact on Asia Gas Markets of Russia's Eastern Gas Strategy," *Oxford Energy Comment* (February).
Hogselius, Per. 2013. *Red Gas: Russia and the Origins of European Energy Dependence.* New York: Plagrave Macmillan.
Ito, Shoich. 2007. "Russia′s Energy Diplomacy toward the Asia-Pacific: Is Moscow′s Ambition Dashed?" Slavic Research Center. Sapporo. Japan. July 4.
Jaffe, M Amy, Medlock B. Kenneth III and O'Sullivan L. Meghan. 2015. "China's Energy Hedging Strategy: Less than Meets the Eye for Russian Gas Pipelines."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February 9), www.nbr.org/downloads/pdfs/eta/ES_2015_ChinaHedgingStrategy.pdf. (검색일: 2015년 3월 3일)
Koch-Weser, Iacob and Murray, Craig. 2014. "The China－Russia Gas Deal: background and Implications for the Broader Relationship,"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9 June), http://origin.www.uscc.gov/sites/default/files/Research/China%20Russia%20gas%20deal_Staffbackgrounder.pdf (검색일 2014년 7월 19일).
Liao, Xuanli. 2007. "The petroleum factor in Sino－Japanese relations: beyond energy cooper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 7, 23-46.
Motomura, Masumi. 2014. "Japan's need for Russian oil and gas: A shift in energy flows to the Far East." *Energy Policy* 74.
Norling, Nicklas. 2006. "Russia's Energy Leverage over China and the Sinopec-Rosneft Deal."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 4, No. 4, 31-38.
Oystein, Noreng. 2002. *Crude Power.* London: I. B. Tauris.
Paik, Keun-Wook. 2014. "Sino-Russian energy cooperation." *Oxford Energy Forum* 95, (February).
_____. 2015. "Sino-Russian Gas and Oil Cooperation: Entering into a New Era of Strategic Partnership?" *OIES Paper: WPM* 59 (April).
Piontkovsky Andrei. 2007. "China's Threat to Russia." The Gardian (August 27),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07/aug/27/chinasthreattorussia. (검색일: 2007년 10월 2일)
Platts. 2011. "Russian Crude Oil Exports to the Pacific Basin-an ESPO Update." (February), https://www.platts.com/im.platts.content/insightanalysis/industrysolutionpapers/espo0211.pdf (검색일: 2011년 8월 21일)
PONARS Eurasia. 2015. "Russia, China and Their Relations with Central Asia: An Interview with Marlene Laruelle." (May 13), http://www.ponarseurasia.org/article/russia-china-and-their-relations-central-asia-interview-marlene-laruelle. (검색일: 2015년 6월 10일)
Shadrina, Elena. 2014. "Russia′s Dilemmas about China's Gas Market,"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 2, No, 251-73.
Shin, Beom-Shik. 2011. "Russia's 'Return' to Asia: How Should South Korea Respond?" *EAI Issue Briefing* No. MASI 2011-09 (December 30).
Shoujun, Cui. 2014. ″Gas deal to exert deep geopolitical impacts.″ global times (May 28), http://www.globaltimes.cn/content/862747.shtml (검색일: 2014년 8월 7일)
Skalamera, Morena. 2014. "Pipeline Pivot: Why Russia and China are Poised to Make Energy History." *Belfer Center Policy Brief.* (May), http://belfercenter.ksg.harvard.edu/files/Skalamera%20policy%20brief.pdf. (검색일: 2014년

9월 4일)
TASS. 2015. "China, Russia to sign a host of cooperation deals during Xi's visit to Moscow." (May 4), http://tass.ru/en/world/792927. (검색일: 2015년 7월 11일)
The White House. 2014. "FACT SHEET: U.S.-China Joint Announcement on Climate Change and Clean Energy Cooperation." (November 11),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4/11/11/fact-sheet-us-china-joint-announcement-climate-change-and-clean-energy-c. (검색일: 2015년 1월 15일)
Treadgold, Tim 2014. "Merrill Lynch Says Russia's Gas Deal With China Was A Political Win But A Business Loss." *Forbes* (May 28), http://www.forbes.com/sites/timtreadgold/2014/05/28/merrill-lynch-says-russias-gas-deal-with-china-was-a-political-win-but-a-business-loss/ (검색일: 2014년 12월 7일)
Ryzhkov, Vladimir. 2014. "The New Putin Doctrine." *Moscow Times* (April 3), http://www.themoscowtimes.com/opinion/article/the-new-putin-doctrine/497316.html (검색일: 2014년 4월 6일)
Watt, Louise and Isachenkov, Vladimir. 2014. "China Signs 30-Year Deal for Russian Natural Gas." *Associated Press* (May 21), http://bigstory.ap.org/article/gazprom-china-russia-sign-30-year-gas-deal (검색일: 2014년 6월 2일)
Wishinick Elizabeth. 2000. "Chinese Perspectives on Cross-Border Relations." Sherman W. Garnett ed. Rapprochement or rivalry?: Russia-China relations in a changing Asia, 227-256.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_____. 2014. "The 'Power of Siberia': No Longer a Pipe Dream," *PONARS Eurasia Policy Memo* No. 332 (August).

Назад к разделу Экономика. 2014. "Газовый договор России с Китаем: эксперты рассказали подробности," (2014/05/21), http://finance.bigmir.net/news/economics/48584-Gazovyj-dogovor-Rossii-s-Kitaem—eksperty-rasskazali-podrobnosti (검색일: 2014월 11월21일).

国务院办公厅. 2014.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能源发展战略 行动计划 (2014-2020年) 的通知』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11/19/content_9222.htm# (검색일: 2015년 5월 14일)

필자 소개

신범식 Shin, Beom Shik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 교수.
서울대 아시아연구원 중앙아시아센터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학사, 러시아 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교(MGIMO) 정치학 박사.

논저 『유라시아의 도전과 국제관계』,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Russia's Network State Strategy: Construction of Energy Pipeline Network", "Concept, Reality and Limits of 'Strategic Partnership' in Russia-China Relation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Climate Change and Prospect of U.S.-China Relations", "Global Network Politics of Russia's Oil and Gas Pipeline Network Construction toward Northeast Asia"

이메일 sbsrus@snu.ac.kr